2023.04.10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김가현 연구원

요 약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아태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1.8%로 확대되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동 지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플랫폼 개발 기업과 제휴하여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의사 수는 부족한 실정임

- 2028년까지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의 18.5%, 31.4%, 17.1%에 해당하는 인구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는 아태지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1)]
  -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독일(4.19명)이나 미국(2.56명)과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약 0.02명, 태국 0.47명, 미얀마 0.56명 수준에 그침

○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증가,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특히 인도, 중국 등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봉쇄·셧다운 정책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음[2)]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디지털 의료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로 의료 플랫폼 개발 기업과 협력하여 원격 의료,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3)]
- 아시아 지역에서는 2020년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44%인 14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디지털 의료 서비스의 보급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4)]

---

1) Deloitte(2019), “The future of Life Sciences and Health Care in Asia Pacific”
2) Grandviewresearch(2022), “Asia Pacific Digital Health Market Size Report, 2030”
3) HKTDC(2021), “The ASEAN Digital Health Landscape: An Overview”
4) Mckinsey(2021), “The future of healthcare in Asia: Digital health ecosystems”

○ 이러한 성장 추세에 따라 아태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21.8%로 확대되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5)]

-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110억 달러였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약 18%로 나타나 전체 시장 대비 아태지역의 성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6)]
- 또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아태지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간 4.7%로 GDP 성장률인 3.6%보다 높게 나타나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7)] 이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채택할 가능성을 높임

○ 현재 아태지역 내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원격 상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8)]

- 인도네시아의 Halodoc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약 25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제휴해 고객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약국과도 협업하고 있음
- 중국의 최대 온라인 헬스케어 앱인 '핑안 굿 닥터'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진 예약과 건강상품, 검진키트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싱가포르의 공유택시 앱인 '그랩'과 협력하여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기도 함
- Mundipharma 싱가포르지사에서는 Breatherite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여 AR기술과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해 천식 환자의 흡입기 사용 방법을 교정 및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기업과 제휴하여 자사 고객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지원 인큐베이터를 설립함[9)]
  - 싱가포르와 홍콩은 텔레매틱스, 인슈어테크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Prudential은 인도네시아의 Halodoc과 협력하여 자사 고객에게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A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고객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다 활동적인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 추적기와 같은 웨어러블 사용을 장려함[10)]
- 싱가포르에서는 손해 보험 협회, 생명 보험 협회, IHiS(Integrated Health information Systems)가 함께 협력하여 건강보험 청구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료 부문과 보험 부문 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11)]
  -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보험 관련 세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를 대신해 디지털 방식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함
  - 보험회사는 필요한 청구 자료와 데이터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예상 청구 가능 금액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음

---

5) Grandviewresearch(2022), "Asia Pacific Digital Health Market Size Report, 2030"
6) Grandviewresearch(2022), "Digital Health Market Size, Share & Trends Report, 2030"
7) OECD&WHO(2022),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22"
8) Deloitte(2019), The future of Life Sciences and Health Care in Asia Pacific
9) Bain&Company(2019), "Making the Most of Asia-Pacific's Insurance Boom"
10) HKTDC(2021), "The ASEAN Digital Health Landscape: An Overview"
11) Health Catalyst(2021), "2021 Asia-Pacific Healthcare Trends"